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I. 2023년 3월 건설경기평가 및 4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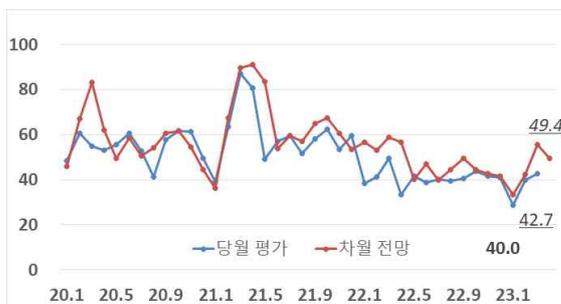
■ 3월의 경기평가는 2개월 연속 개선, 4월도 지속 개선 전망

- 3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2.7로 전월(40.0)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2.7p), 4월의 전망치(49.4)는 지속 개선될 것으로 집계됨. 응답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전월에 이어 타워크레인의 잔업거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노조의 대응이 지적된 것이 주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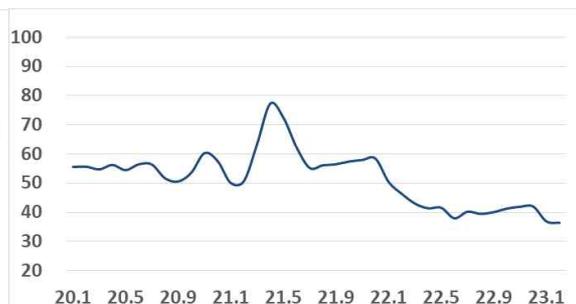
- 수도권은 40.4(43.8→40.4)로 하락(-3.4p), 지방은 43.5(38.6→43.5)로 개선(+4.9p)된 것으로 조사됨.

〈표-1〉 2023년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3년 4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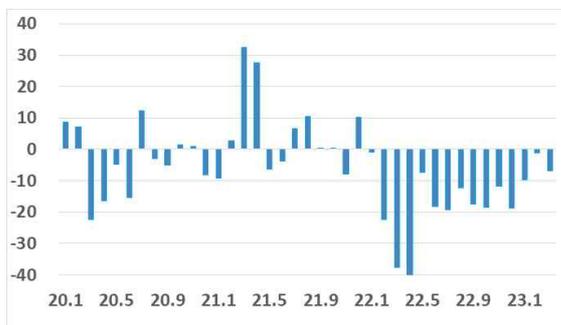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3년 3월 평가	42.7	49.6	40.4	43.5	30.0	50.7
2023년 4월 전망	49.4	56.8	51.1	48.9	43.3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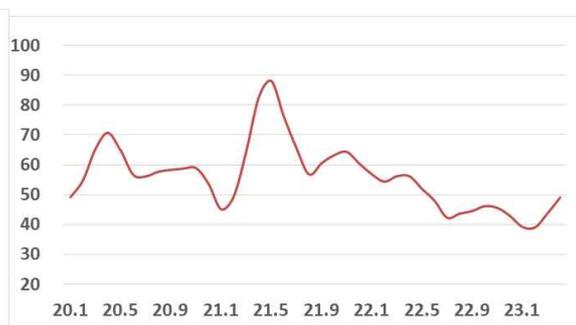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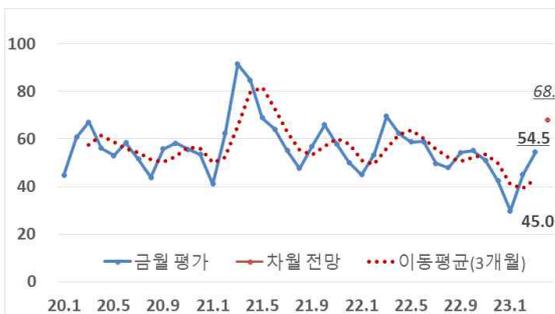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개선, 하도급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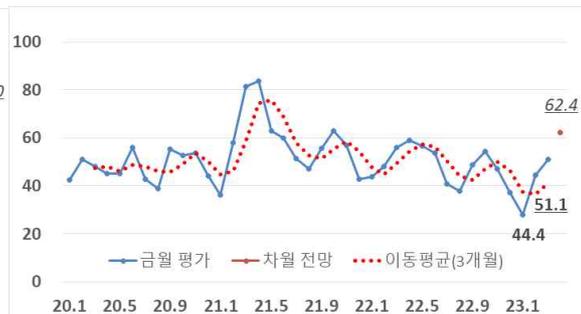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4.5(45.0→54.5)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9.5p), 여전히 전년 동월과의 차이는 명확함. 하도급수주는 51.1(44.4→51.1)로 전월에 이어 개선 되었으며(+6.7p) 전년 동월과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적었음.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8.3→55.3)에서 전월과 소폭 차이를 보인 반면(-3p), 지방(40.2→54.2)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14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6→66.6)은 전월과 유사했지만(+2p), 지방(37.1→45.8)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8.7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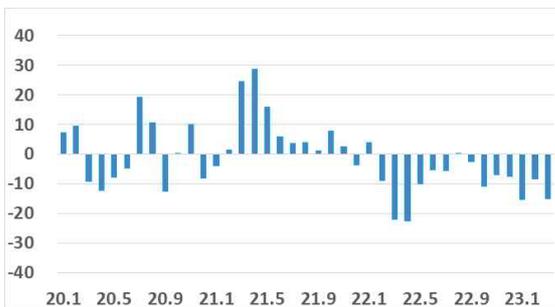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3년 3월 평가	54.5	69.6	55.3	54.2	46.7	52.2
	2023년 4월 전망	68.0	69.6	85.1	61.8	80.0	68.7
하도급 수주	2023년 3월 평가	51.1	56.1	66.0	45.8	53.3	50.7
	2023년 4월 전망	62.4	65.0	74.5	58.0	73.3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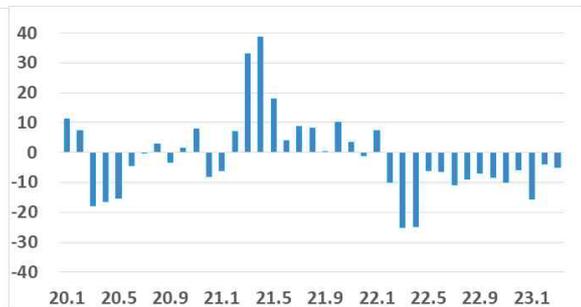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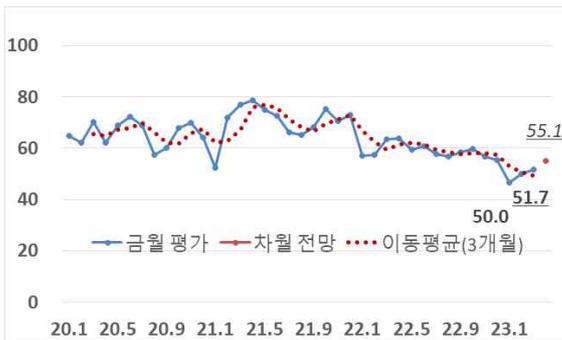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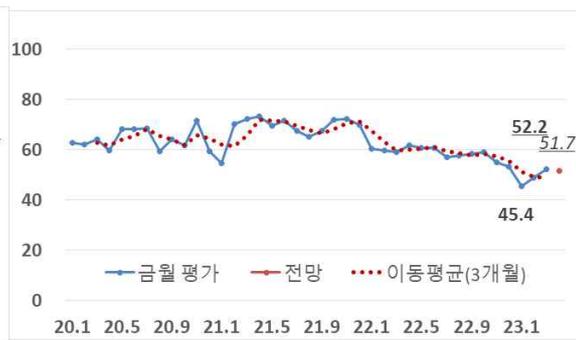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1.7(50.0→51.7)로 전월과 유사했으며(+1.7p), 다음 4월의 전망치(55.1)는 금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집계됨.
 - 수도권(49.2→44.7)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4.5p), 지방(49.2→54.2)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5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2.2(48.9→52.2)로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3.3p), 전년 동월(58.9)과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54.2→46.8)은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지만(-7.4p), 지방(47.3→54.2)은 전월에 이어 개선세를 이어감(+6.9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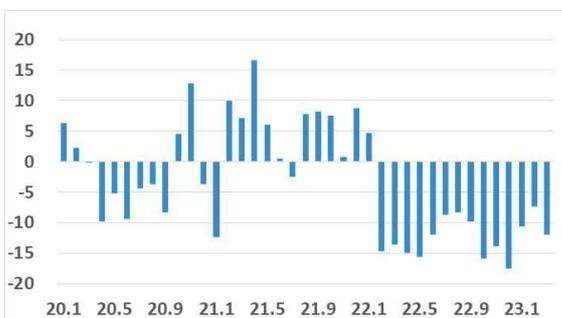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3년 3월 평가	51.7	63.6	44.7	54.2	36.7	52.2
	2023년 4월 전망	55.1	63.2	57.4	54.2	53.3	56.7
자금조달	2023년 3월 평가	52.2	58.9	46.8	54.2	36.7	58.2
	2023년 4월 전망	51.7	62.1	46.8	53.4	46.7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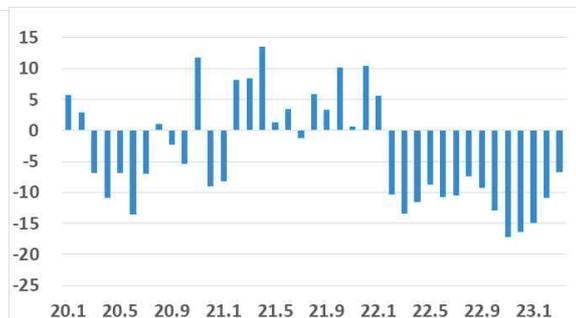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하락, 기능인력수급은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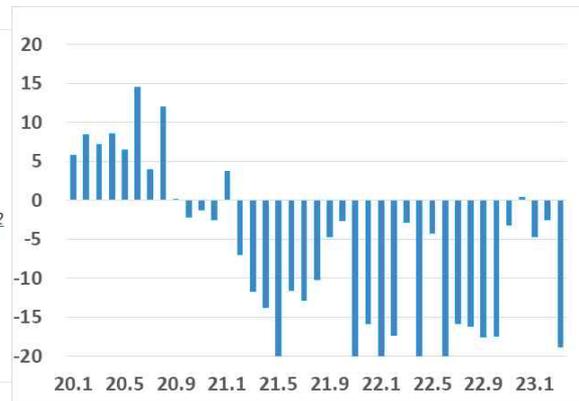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41.6(46.7→41.6)으로 소폭 하락하면서(-5.1p) 전년 동월(43.9)의 수준을 나타냄. 참고로 금월의 조사에서 일부 업체들이 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45.8→36.2)은 전월보다 크게 악화되었으며(-9.6p), 지방(47.0→43.5)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냄(-3.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57.9(65.0→57.9)로 전월보다 하락했는데(-7.1p) 이는 전년 동월(60.4)보다도 낮은 수준임. 이와 관련해 일부 응답업체들은 인력수급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함.
 - 수도권(66.7→46.8)의 현저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19.9p), 지방(64.4→61.8)은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2.6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3년 3월 평가	41.6	43.9	36.2	43.5	36.7	50.7
	2023년 4월 전망	51.7	44.3	51.1	51.9	40.0	62.7
인력수급	2023년 3월 평가	57.9	60.4	46.8	61.8	50.0	59.7
	2023년 4월 전망	64.0	58.2	57.4	66.4	56.7	68.7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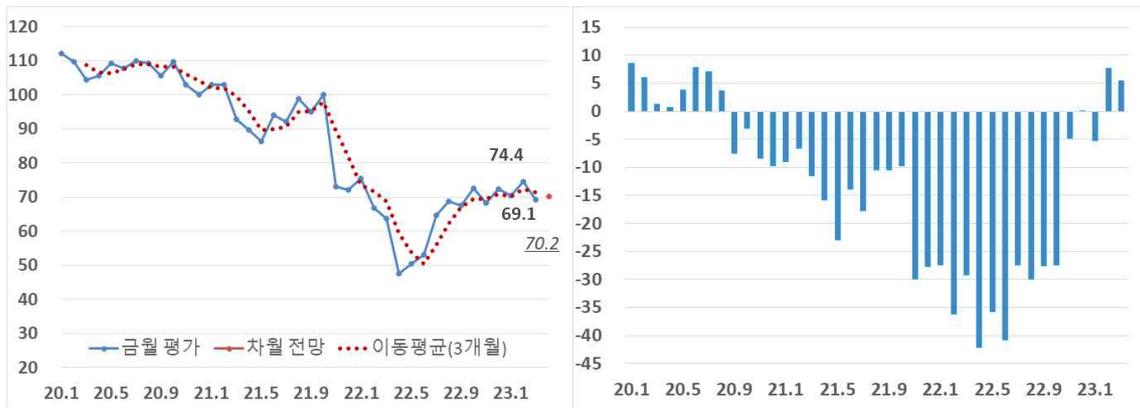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모두 소폭 하락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34.3(38.9→34.3)으로 소폭 하락했으며(-4.6p), 차월의 전망(48.9)은 실현 되더라도 업황의 반전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함. 당분간 자재비와 관련된 체감정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47.9→29.8)은 전월보다 크게 악화되었지만(-18.1p) 지방(35.6→35.9)은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0.3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9.1(74.4→69.1)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며(-5.3p), 이번 조사에서는 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응답업체들이 적지 않았음.
 - 수도권(83.3→66.0)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17.3p), 지방(71.2→70.2)은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1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3년 3월 평가	34.3	21.4	29.8	35.9	23.3	41.8
	2023년 4월 전망	48.9	26.1	44.7	50.4	36.7	59.7
자재수급	2023년 3월 평가	69.1	63.6	66.0	70.2	60.0	76.1
	2023년 4월 전망	70.2	60.7	61.7	73.3	56.7	76.1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 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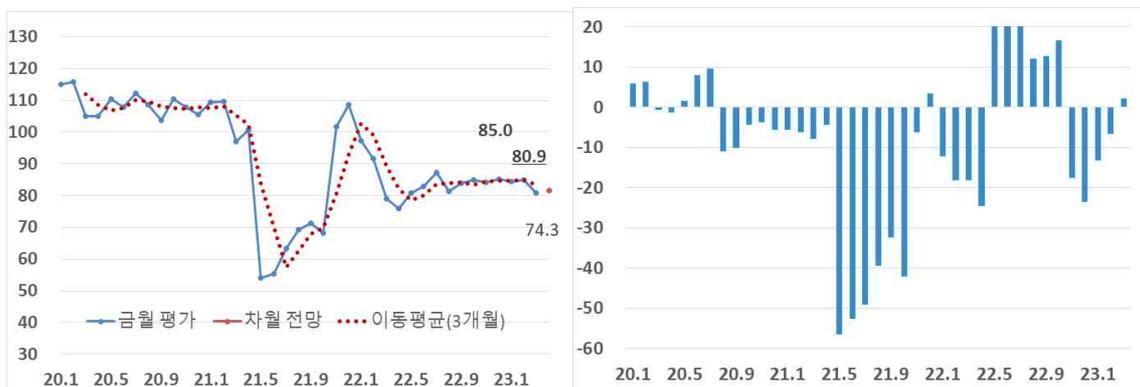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전월 수준,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8.4(55.6→58.4)로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2.8p) 이러한 상황은 차월(59.6)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2p). 장비임대료는 유가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반영되어 나타나기에 단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수도권(64.6→61.7)은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2.9p), 지방(52.3→57.3)은 얼마간의 개선세를 보였음(+5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0.9(85.0→80.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4.1p). 다만 일반적인 시장환경에서는 장비 수급의 문제가 특히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93.8→87.2)은 전월 대비 하락(-6.6p), 지방(81.8→78.6)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3.2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3년 3월 평가	58.4	42.9	61.7	57.3	56.7	64.2
	2023년 4월 전망	59.6	50.4	68.1	56.5	63.3	67.2
장비수급	2023년 3월 평가	80.9	78.9	87.2	78.6	80.0	85.1
	2023년 4월 전망	81.5	74.3	87.2	79.4	80.0	89.6



〈건설장비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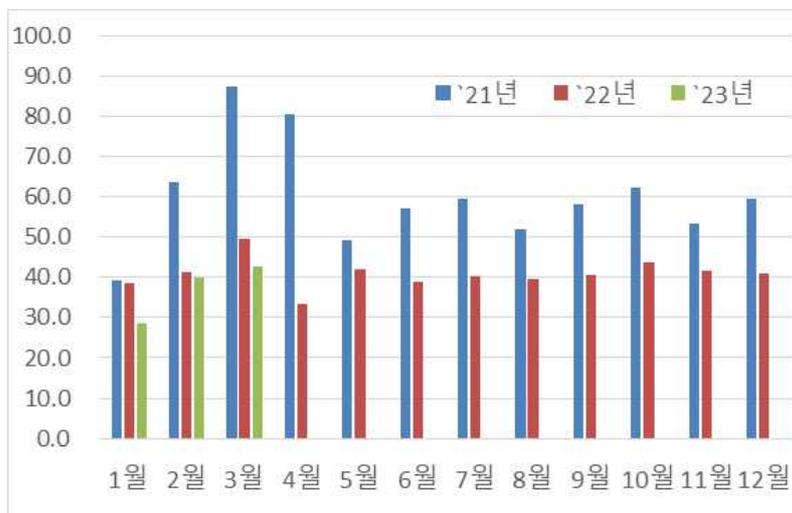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3년 3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2.7	49.6	40.4	43.5	30.0	50.7
	차월 전망	49.4	56.8	51.1	48.9	43.3	55.2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69.6	55.3	54.2	46.7	52.2
		차월 전망	68.0	69.6	85.1	61.8	80.0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6.1	66.0	45.8	53.3	50.7
		차월 전망	62.4	65.0	74.5	58.0	73.3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3.6	44.7	54.2	36.7	52.2
		차월 전망	55.1	63.2	57.4	54.2	53.3
	자금조달	금월 평가	58.9	46.8	54.2	36.7	58.2
		차월 전망	51.7	62.1	46.8	53.4	46.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3.9	36.2	43.5	36.7	50.7
		차월 전망	51.7	44.3	51.1	51.9	40.0
	인력수급	금월 평가	60.4	46.8	61.8	50.0	59.7
		차월 전망	64.0	58.2	57.4	66.4	56.7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21.4	29.8	35.9	23.3	41.8
		차월 전망	48.9	26.1	44.7	50.4	36.7
	자재수급	금월 평가	63.6	66.0	70.2	60.0	76.1
		차월 전망	70.2	60.7	61.7	73.3	56.7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42.9	61.7	57.3	56.7	64.2
		차월 전망	59.6	50.4	68.1	56.5	63.3
	장비수급	금월 평가	78.9	87.2	78.6	80.0	85.1
		차월 전망	81.5	74.3	87.2	79.4	80.0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